

인간과 동물의 교감을 미술로 풀어내다

2025 국윤미술관 가정의 달 기획전 'Live together'

현대 사회에서 반려동물은 가족이자 인생의 동반자다. '가족'이라는 전통적 개념을 현대에 맞춰 재조명한 전시가 펼쳐진다.

국윤미술관에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한 달간 기획전 'Live together'를 개최한다. 반려동물을 주제로 인간과 동물 간의 정서적 교감과 공존의 의미를 예술 작품으로 탐색하는 시간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전시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17인의 작가가 참여해 회화, 조각, 혼합매체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단순한 애완의 개념을 넘어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인식되는 반려동물들을 각기 다른 시각으로 풀어내 정의하려는

'반려동물' 주제로 25일 개막 내달 25일까지 회화·조각 등 참여작가 17인 담았던 시각 "공존의 미학 빛어낸 상상력"

시도를 담았다.

참여작가들은 동물을 의인화하거나 상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투영하고, 관람객이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김선희 작가는 할리우드 영화 속 히어로들의 의상을 입은 반려견을 통해 반려동물을 현대 사회의 히어로로 표현한다. 그의 작품 '엄마 없는 동안에'는 기하학적



김선희 작 '엄마 없는 동안에'. 국윤미술관 제공

사실적 표현이 어우러져 유쾌한 상상력을 자극한다.

김지연 작가의 'Happy time'은 따스한 색조와 몽환적 배경 속에 여인과 반려

묘의 교감을 담아내며 김해성 작가는 '반가사유미소'에서 절제된 선과 색으로 자연과의 교감을 상징적으로 그려냈다.

반려동물과 꽃을 자연스럽게 융합한 박미애 작가의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유머와 따뜻함을 동물의 표정에 투영해 인간과 동물, 자연이 공존하는 세상을 탐색한 서현호 작가의 '재생의 땅'도 눈길을 끈다.

최순임 작가는 '우리 함께라서 다행이야'에서 소녀와 반려묘의 맑은 시선과 몸짓을 통해 인간과 동물 사이의 유사성을 섬세하게 포착했으며 한미경 작가는 '여우가 차버린 집'과 '맹맹의 하루'를 통해 동물의 이야기를 인간 삶에 빚대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낸다.

이 외에도 박정근, 박정일, 오선화, 윤서영, 이다애, 이두환, 이지수, 이진상, 조유나, 주성희 등 다양한 세대와 스타일의

작가들이 참여해 전시를 다채롭게 꾸민다.

국윤미술관은 이번 전시가 단순한 미술 감상을 넘어 관람객들이 예술을 통한 정서적 연결을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 기능하길 기대하고 있다.

국윤미술관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통해 인간 내면의 치유, 일상의 감성, 시대의 초상을 아우른 메시지를 담은 전시"라며 "누구나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반려동물을 주제로 미술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람객이 작품 속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몰입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광주 동구 국윤미술관에서 관람할 수 있다. 전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윤미술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국립광주과학관의 '제9기 루체스타' 단원들이 지난 13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립광주과학관 제공

청소년 과학문화 홍보소통단 '제9기 루체스타'

호남권역 과학인재 109명 구성 프로그램 홍보·콘텐츠 제작 등

국립광주과학관은 청소년 과학문화 홍보소통단이자 과학커뮤니케이터 역할을 수행할 '제9기 루체스타'가 지난 13일 발대식을 가진 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루체스타'는 지난 2017년에 시작돼 올해로 9기를 맞이했다. 명칭은 국립광주과학관의 빛나는 별을 의미하며, 올해 단원들은 호남권역 초·중·고 109명의 학생으로 구성됐다.

루체스타 9기 단원들은 이달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국립광주과학관 홍보와 과학커뮤니케이터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국립광주과학관의 주요 전시·교육·행

사 참여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를 통한 홍보 △콘텐츠(포스터, 영상) 참여 △과학 실험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과학을 쉽고 재밌게 전달하며 소통할 예정이다.

올 한 해 우수한 활동을 수행한 단원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비롯해 광주시장상, 광주시교육감상, 국립광주과학관장상 등이 수여된다.

이성배 국립광주과학관 홍보협력실장은 "올 한 해 루체스타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 행사장을 가득 채워준 단원들과 가족분들의 관심에 감사하다"며 "루체스타 단원들이 과학관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과학 콘텐츠 제작을 통해 호남권 과학 문화 확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크라운해태, 광주시민들과 함께 한 '한음공연' 성료

임직원 180명과 '한음영재' 참여 고객 사랑에 보답 전통음악 공연

크라운해태제과 임직원들이 16일 광주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꾸민 '제4회 크라운해태 한음공연'이 시민들과 함께 흥겨운 전통음악 축제로 성황리에 마쳤다.

크라운해태 임직원들은 스스로 즐기며 배우고 익힌 전통음악을 통해 고객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공연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열고 있다.

지난해 대전과 대구에 이어 열린 광주 공연도 전석 지역 고객을 초청한 감사 공연으로 한층 진한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했다.

이번 광주 공연은 임직원 180명이 참여해 크라운해태 한음회 역대 최대 규모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전통음악에 광주지역 한음영재들까지 공연무대에 올라 지역주민들과 함께 흥겨운 잔치 같은 공연으로 진행됐다. 공연은 대표적인 국가무형유산인 종묘제례악 보태평지무(희무, 귀인)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민요 장기타령과 자진벚노래와 판소리 인생백년과 진도아리랑 때창으로 공연의 흥을 더했고, 남창가곡 중 우조 우편과 12가사 중 매화가 가곡과 사물놀이 삼도농악가락이



크라운해태제과 국악동아리 '팔봉의 몸짓팀'이 16일 광주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린 '제4회 크라운해태 한음공연'에서 종묘제례악 '보태평지무 중 희문'을 공연하고 있다. 크라운해태제과 제공

펼쳐졌고, 종묘제례악 정대업지무(소무, 영관)로 막을 내렸다.

크라운해태제과 관계자는 "예술을 후원하는 회사는 많지만 임직원들이 스스로 배우고 익혀 고객을 초청해 열리는 유일한 전통음악 공연이다"며 "평소 갈고 닦은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광주 지역 고객들에게 전할 수 있어 뜻 깊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한음공연을 통해 고객들과 함께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으로 행복을 만들어 나

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임직원들은 전문 국악인 못지 않은 열정과 회사의 후원으로 지난 15년간 약 200여회 공연무대에 올랐다. 지금까지 공연에 오른 직원 수만 1만3000여명으로, 직원 1명이 4번 넘게 무대에 오른 셈이다. 전문가 수준의 실력을 갖춘 직장인들이 앞으로 더 다양한 무대를 통해 전통음악을 계승발전 시키고 아름다움을 전해 나갈 계획이다. 박찬 기자

국악의 매력에 '홀릭' 되다

광주문화재단, 토요 상설공연 19일 오후 3시 전통문화관서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19일 오후 3시 두 번째 토요 상설공연 무대를 선보인다.

16일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이번 전통문화관 토요 상설공연은 창작연희국악단 '홀릭'과 함께 전통의 장단, 아름다운 춤의 선, 리드미컬한 북소리가 어우러진 무대로 준비됐다.

'홀릭'은 타악기, 한국무용, 판소리를 아우른 전통과 창작을 접목해 신선한 무대를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는 단체다. 국악이 지닌 잔잔함, 애절함, 웅장함 등 다

양한 감정과 함께 현대적인 음악과 결합해 새로운 무대를 창조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무대에서는 각양각색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한데 어우러져 각기 다른 전통의 언어들을 하나의 감각적인 이야기로 풀어낼 예정이다.

광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홀릭'과 함께 전통의 장단, 아름다운 춤의 선, 리드미컬한 북소리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무대로 관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라며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온몸으로 빠져드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으로 관객과 깊은 교감을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 기자

일상으로 찾아오는 문화 향유 기회 '누리랑께'

22-23일 올해 첫 문화장터 계림1동 행정복지센터 등

광주문화재단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가맹점 문화장터 '누리랑께'를 오는 22-23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리는 제1·2차 문화장터는 계림1동 행정복지센터 3층 다목적실, 상무2동 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22-23일 이틀간 진행되며 운

영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생활 전용 복지카드다. 광주문화재단은 고령자, 장애인 등 문화누리카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행사를 마련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문화장터는 이달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18회 진행된다.

박찬 기자